



〈혼인잔치의 초대〉, 김옥순 수녀작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마태 22,10-12)

[제1독서] 이사 25,6-10ㄱ

[화답송] 시편 23(22),1-3ㄱ,3나ㄷ-4,5,6
(◎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필리 4,12-14,19-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음] 마태 22,1-14 (또는 마태 22,1-10)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¹ 말씀하셨다.
²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³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⁴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향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 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⁵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⁶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⁷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⁸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⁹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¹⁰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¹¹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와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¹²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¹³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¹⁴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복음 묵상



《혼인잔치의 초대》, 김옥순 수녀작

많은 사람이 하느님의 거룩한 혼인 잔치에 들어가
 즐거워하는데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하며 물러갑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리 가까이 아무도 모르게 힘들어
 하는 이는 없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마음을 쓰고 가진 바를 나누는다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아름다운 예복을 갖추어 입을 것입니다. (김옥순 수녀)

복음 묵상

임금이 종들을 보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며
 초대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 번째 초대에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하였던
 것일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임금의 아들이 혼인한다는 것은
 왕자가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 임금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켜 왕권을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지녔음을 보여 줍니다. 요컨대 오늘 비유에 나온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이가 통치하는 나라, 자기들의
 뜻대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꾸었기에
 이와 같은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
 이들을 없애고 그 고을을 불살라 버린 것은 왕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혼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 많은 인류의
 일치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이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종들을 죽이는 행위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치와, 그 일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참임금이 되시는 것을
 바라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느님
 나라를 외쳤지, 실제로는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나라, 자기들이 임금이 되는 나라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한재호 루카 신부)

“서로 사랑하십시오” ... 회칙 「모든 형제들」 반포

교황, 사랑 우위성 강조, 코로나19와 인종차별 등 분열된 사회 극복 방안 제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 회칙 「모든 형제들」 (Fratelli tutti)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을 비롯해 빈곤과 인종차별, 폭력 등 다양한 문제로 분열된 현대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4일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반포했다. 교황은 회칙에서 그리스도인과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형제자매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교황은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경험과 문화를 나누고 서로를 경청하며 알게 돼 공동선을 위해 함께 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황은 새 회칙 전반에 걸쳐 사회와 정치적 맥락에서 사랑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새 회칙 제목 「모든 형제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에게 전한 권고에서 나왔다. 교황은 10월 3일 프란치스코 성인 묘소에서 미사를 봉헌한 뒤 회칙에 서명했다. 교황은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을 따르는 형제자매들에게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이라고 말하며 복음 향기로 가득한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면서 자신의 두 번째 회칙 「찬미받으소서」도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287개 항으로 구성된 회칙 「모든 형제들」은 8개 장으로 나뉘어 있다. 각 장 제목은 ▲닫힌 세상에 드리운 어두운 구름 ▲길 위의 이방인 ▲열린 세상을 예상하고 불러 일으키기 ▲전 세계에 열린 마음 ▲더 나은 종류의 정치 ▲사회 안의 대화와 우정 ▲새로운 만남의 길 ▲형제애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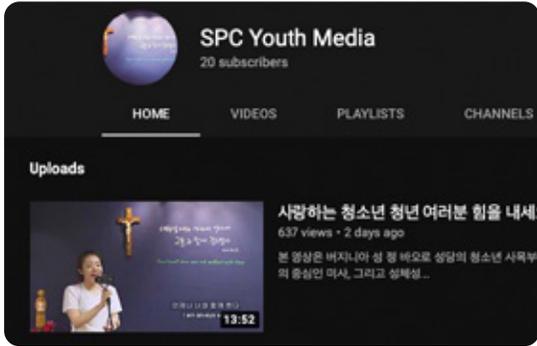
새 회칙 발표 기자회견에 나선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 새 회칙이 형제애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형제애는 하나의 트렌드나 유행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결과”라면서 “새 회칙은 국제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할 형제애 문화를 당부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관련 기사]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10/enciclica-fratelli-tutti-papa-francesco-sintesi-fraternita.html>

청소년 사목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오픈

SPC Youth Ministry SNS Open



<https://www.youtube.com/channel/UCg2uP7vOZAFyGk4TRLU4q8A>



https://www.instagram.com/spc_emmaus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루카 24,13)

성 정 바오로 성당 청소년 사목부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인스타그램(@spc_emmaus)과 유튜브(SPC Youth Media)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신앙 생활의 중심인 미사, 그리고 성체성사로부터 멀어진 오늘, 낙심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새롭게 오픈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그동안 멀어졌던 유대감을 되찾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내용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본당의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의 관심과 참여,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alked with them” (Luke 24,13)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at the SPC Youth Ministry has created an Instagram (@spc_emmaus) and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Under COVID-19, many of us are missing out on Mass, been absent from the Eucharist and have gotten lost in our faith centered life while dealing with the many changes to our daily routines.

Following the teachings of Jesus as he walked with the two discouraged disciples heading to Emmaus, we are trying to reach out to those youth and young adults around us to get connected with God, grow in their faith and feel His presence in our lives.

Feel free to follow the Instagram and engage in our posts, we are open to everyone and ready to hear your stories as well. Enjoy the YouTube channel with a variety of content including our friends and families. Through these two SNS platforms, we hope our church's youth and young adults will stay engaged with each other and grow their faith together.

*Be courageous and strong!
Jesus comes near and walks with us always!*

알링턴 교구 **CYO 남학생들을 위한 자전거 트립**
 Bike Retreat for High school guys with priests and seminarians

교구 성소국에서 10월 24일(토),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이 이끄는 자전거 트립에 CYO 남학생들을 초대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가허락서(Permission Form)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성소국으로 10월 16일(금)까지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와 플라이어를 참고하세요.

<https://www.arlingtondiocese.org/quo-vadis-bike-retreat/>



Bring your own bike & lunch

Saturday October 24
 9:00 a.m.—2:00 p.m.
 Register by October 16

Meet at St. Rita (Alexandria)
 Mass & breakfast
 Bike to Hains Point for racing,
 hanging out and picnic lunch
 Return to St. Rita



Office of Vocations
 703-841-2514
 ArlingtonVocations.org
 vocations@arlingtondiocese.org



1 주일 미사 안내

- 주일 미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웹사이트의 **“미사 참여 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 오전 10시 미사 초과 신청으로 **주일 오전 8시 미사를 재개** 합니다. 보다 안전한 미사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명)**

2 평일 미사 안내

- 화요일 : 오후 7시 30분 • 수요일 : 오전 11시
- 금요일 : 오후 7시 30분 (예방 수칙은 주일미사와 동일합니다.)

3 한마음 기도 시간에 대하여

- 매일 밤 9시 한마음 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본당의 일치와 화합을 위해’ **주모경** 1번씩 바쳐 주시고, 묵주기도와 나머지 기타 기도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당 웹사이트 적극 활용

- 코로나19 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상황을 본당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보기 쉽게 바꾸었습니다. **온라인 봉헌**이 신설되었고,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로 본당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유아세례 안내

- **유아세례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에 있으니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

- 가톨릭신문 미주판 폐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체크에 적을 정확한 **영문 이름과 주소**를 **이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ST.PAUL CHUNG CATHOLIC CHURCH (#1937)
- LAST DATE : 10/31/2020
- Refund Amount(2.55X4 weeks) : **\$10.20**
- 이메일 : ctimesusa@gmail.com
- 전화번호 : 323-351-7788

7 문화부 봉사자 모집

- 문화부 활동과 가톨릭 미디어 제작에 관심있는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영상편집, 그래픽디자인, 음향장비**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연락처: 정주용 토마스 (703-509-2287, juyong_j@hotmail.com)

8 2020년 학생건진성사

- 일시 : 10월 13일(화) 저녁 7시
- 대상 : 20명 • 주례 : 마이클 버빗지 주교님
- * 미사 시간이 평상시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2021년도 매일미사 책 주문

- 금액 : 1년분 \$65
- 문의 : 성물부 회장 **조로사** (703)547-7703

10 CYO 남학생들을 위한 알링턴 교구 행사

- 교구 성소국에서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이 이끄는 자전거 트립에 CYO 남학생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 24일(토)
- 등록 : 아래 사이트에서 참가허락서(Permission Form)를 다운로드, 작성 후 성소국으로 10월 16일(금)까지 제출 <https://www.arlingtondiocese.org/quo-vadis-bike-retreat/>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중 제28주 주간: 에제 7-12, 1요한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0년 10월 4일(연중 제27주일)

주일헌금	\$1,946.00
교무금	\$9,25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880.00
감사헌금	\$800.00
합계	\$15,876.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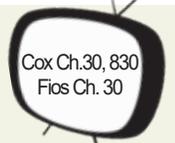
10월 14일(수) 오전 6:15-6:45 | 10월 1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윤원진 신부님의 성서특강 ‘열가지 재앙’**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 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 10월 15일(목) 오후 5:00-6:00
- 10월 16일(금) 저녁 8:00-9:00
- 10월 18일(일) 오전 6:00-7:00



- **특집: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평화방송 주최 심포지엄**
펜데믹과 교회(3) - **코로나 19-도전과 기회**
- **걸어서 만나는 신앙**